

##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실효성 재고찰

전원재<sup>1</sup> · 정기홍<sup>2</sup>

<sup>1</sup>강남대학교 주임교수 · <sup>2</sup>강남대학교 교수

###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of a swimming pool for children in the era of "With COVID-19"

Jeon, Wonjae<sup>1</sup> · Jung, Kihong<sup>2</sup>

<sup>1,2</sup>Kangnam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ministration challenges for children's swimming pools in the "COVID-19 era" and measures to improve management way to prepare for the "With COVID-19 era" in the near future. A case study was applied. 12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using purposeful sampling.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ree stages of systematic analysis procedures proposed by Miles & Huberman (2009).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era of COVID-19, the difficulties of management a children's pool were found to be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xiety, slumping, and the risk of stable supply of instructor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risk group frame by media and inequity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Second, in the era of with Corona, the measures to improve the children's swimming pool administration have emerged to seek changes in the pool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to devise new countermeasures, and to change the legal and chang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demand for revision of bills and promote polici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children's pool in the era of "with COVID-19".

**Key words :** Children Swimming Pool, with COVID-19, COVID-19 Pandemic,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주요어 : 어린이전용수영장, COVID-19, 위드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체육시설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g, Kihong

E-mail: king@kangnam.ac.kr

Received: July, 29, 2021 Revised: September, 01, 2021 Accepted: September, 17, 202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김차경, 2020, 12, 18), 1, 2, 3차 대유행을 겪었고, 현재 4차 대유행의 격동 속에 여전히 사회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국가적 위기는 계속 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Pandemic)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고(WHO, 2020), 스포츠계 역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공공체육 시설을 포함한 대다수의 체육시설은 폐쇄되었고,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이 제한되었으며, 올림픽 등의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국내 각종 대회 등은 대부분 연기 혹은 취소되었다(남상우, 2020). 다시 말해, 모든 국민들의 스포츠 관련 활동 참여, 관람, 행사들이 막혀버린 셈이다. COVID-19 영향으로 국민들의 생활 참여율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12, 30).

지역사회 체육시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신고 실내체육시설업으로 시선을 좁혀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COVID-19사태로 실내체육시설업의 99%가 매출이 감소했고, 59.7%는 임대료를 한달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성조, 2021, 6, 17). 실내체육시설업의 특성 상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 높은 인건비 등으로 회원의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의 위험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실내수영장(어린이전용수영장 포함)은 타 실내체육시설업의 초기 비용 및 운영비가 매우 높은 시설업 중 하나이며, 민간 수영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실제로, 정부의 COVID-19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서 매출 규모만 놓고 지원 대상을 따지다 보니, 각종 지원책에서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집합금지명령으로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장희준, 2020, 12, 28).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611개 실내 수영장

중 어린이전용수영장은 291개(약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9), 현재 국내 어린이 전용수영장은 400곳 이상으로 늘어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4년 전 100여 곳에 비해 급속하게 그 수가 성장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생존수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게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채준, 2019, 9, 16).

민간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초등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의 의무화 및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유아, 아동, 초등학교 등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밑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수영장의 질적, 양적 성장이 매우 진중(珍重)하다. 하지만, COVID-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에 놓여있는 사실에 대해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사업적 성장과 교육부의 초등생 생존수영 의무발표를 기점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어린이 전용수영장에 관한 연구는 크게 경영 마케팅 측면의 연구(김주호, 2017; 김화룡, 성문정, 2019; 방원철, 2015; 신진호, 권연택, 2013; 조이나, 김상유, 박정근, 2021; 홍기혁, 2016)와 시설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이제승, 채환국, 2017; 홍기혁, 박재우, 김주용, 2021)로 나누어 진척되어 왔다. 시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COVID-19의 특별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실태와 미래 대처 방안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시대 속에서 스포츠계와 체육교육 분야의 현실과 미래 대처방안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COVID-19 시대 속 체육수업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김세기, 2020;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포츠계의 진단, 스포츠 산업 변화 양상 및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김도균, 2020; 남상우, 2020; 백지혜, 양서은, 현재민, 2020)가 있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COVID-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운영난에 빠진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강명구, 김주영(2020)가 COVID-19로 인한 유소년클럽의 운영에 관한 분석을 하였으며, 권연택(2021)은 COVID-19 시대 등록·신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 결과, 사설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고찰과 유소년 스포츠키시설업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고찰 혹은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은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특히, 수영장업 중 공공 수영장은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이 있었으나, 민간 수영장은 아무런 혜택 없이 각자도생하라는 식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김용덕, 2021, 1, 9), 이와 관련하여 사설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개연성이 있다.

##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시대 속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관계자가 인식하는 운영 난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지적전통 중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특별한 사례 확인, 사례의 복잡하고 구체적인 현상 파악, 그 현상이나

타나게 된 이유와 상황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Yin, 2017), 본 연구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린이전용수영장 대표, 지도자 등을 포함하는 운영 관계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는 특정 현상에 대한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연구 주제와 목적과 연관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Patton, 1990).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는 2019년 이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수영장에 한정하여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관계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19명을 대상으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고, 적극적 의사를 밝힌 참여자로 최종 1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연구참여자의 성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 NO. | 성명  | 연령  | 성별 | 직위    | 경력  | 지역 |
|-----|-----|-----|----|-------|-----|----|
| 1   | 김태환 | 38세 | 남  | 강사 팀장 | 12년 | 대구 |
| 2   | 박준수 | 43세 | 남  | 대표    | 6년  | 서울 |
| 3   | 권영아 | 47세 | 여  | 대표    | 10년 | 경기 |
| 4   | 전유민 | 41세 | 여  | 직원    | 8년  | 대구 |
| 5   | 김서영 | 56세 | 여  | 대표    | 9년  | 대구 |
| 6   | 박성진 | 43세 | 남  | 강사 팀장 | 15년 | 경기 |
| 7   | 최진아 | 38세 | 여  | 강사 팀장 | 15년 | 경기 |
| 8   | 이종명 | 54세 | 남  | 대표    | 16년 | 부산 |
| 9   | 정경아 | 40세 | 남  | 총괄 팀장 | 14년 | 경북 |
| 10  | 박민아 | 44세 | 여  | 원장    | 20년 | 부산 |
| 11  | 권동완 | 53세 | 남  | 대표    | 8년  | 경북 |
| 12  | 전유준 | 45세 | 여  | 운영 팀장 | 10년 | 대구 |

\* 연구참여자의 성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음.

##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선정된 12명의 연구참여자와 예비면담을 약 40분 정도 실시한 후, 본 면담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면담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개인당 1회 80~90분 정도, 총 1~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방법은 COVID-19 사태로 인해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구참여자가 편한 시간에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시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일관된 질문 방향 유지 및 편견이 없는 질문 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Rubin & Rubin, 2011). 기본적인 면담 범위 및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기본적인 면담 범위 및 내용

| 면담 범위  | 면담 내용  |
|--------|--|
| 개인적 특성 | 성명, 성별, 연령, 경력, 직위, 지역 등   |
| 운영 난제  | 내부 환경적 어려움(수업상황, 차량 운행, 샤워 및 탈의 상황, 강사 인건비 부담, 학부모 행동 대처 어려움, 학생 행동 대처의 어려움, 성인반 운영 난제 등), 외부 환경적 어려움(정부 지원 대책의 비형평성, 지자체 지원의 난제, 보건소와의 소통 난제, 구청 및 시청과의 마찰 등) |
| 개선방안   | 법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및 기대사항, 정책적 방향의 변화 기대 및 개선방안, 수익구조의 변화 및 모색, 수업 환경의 변화 대처 및 방안, 수업 운영의 변화 등   |

이상의 수집된 자료에 대해 Miles & Huberman (2009)이 제시한 체계적 분석절차 3단계를 차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속적인 코딩작업에 기초하여 하나의 주제, 패턴, 개념, 통찰, 그리고 이해를 생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Patton, 2002).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감환(reduction)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면담의 전사자료에서 적합한 내용 선택, 단순화, 요약, 변형의 과정을 거쳤다. 둘째, 자료 전시(display)단계

에서 수정된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진술문 및 내용을 모두 찾아내어 결과 도출을 위해 조직하였다. 그리고 압축된 정보의 조합을 진행하여 연구 문제에 적합한 내용에 맞는 내용 배치를 통해 결과 도출을 위한 방향을 정하였다. 셋째, 결과도출 및 확인단계에서 내용의 규칙성, 패턴, 인과적 흐름을 감안하여 COVID-19 시대의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난제와 대처방안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부터 분석까지 일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분석 절차의 특징이 자료 감환, 전시, 결론 도출과 확인 작업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동성, 김영천, 2014).

## 3. 자료의 진실성 및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Patton, 2002). 3단계에 걸친 자료분석 과정을 연구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결과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분류된 진술문 혹은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였다. 또한,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 전문가(스포츠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스포츠사회학 전공 교수 1명과 박사 2명(유소년 스포츠 관련 전문가 및 체육시설업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검증과정에서 오류로 판단되는 내용의 배치 및 결과도출에 대해 수정하였다(Lincoln & Guba, 1985).

한편, 연구의 윤리성 고려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에 연구참여동의서를 PDF파일로 받았으며, 개인적 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정보는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 Ⅲ.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난제

#### 1. 내부 환경적 요소: 불안감, 사면초가, 그리고 안정적 강사 수급 위험

##### 1) 시설 패쇄 공포로 인한 관계자들의 불안감 및 갈등 고조

국내 COVID-19 사태는 총 4차례에 걸친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다. 1차 유행(2020년 2월 18일~5월 5일), 2차 유행(2020년 8월 12일~11월 12일), 3차 유행(2020년 11월 13일~2021년 1월 20일), 그리고 최근의 4차 유행(대략 2021년 6월 23일~)으로 지역 별로 대규모 유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산발적 유행을 보이고 있다(조승환, 2021, 7, 8). 이러한 대규모 유행으로 인해 지역별로 상이한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된 바 있으며, 거리두기 개편안도 몇 번에 걸친 수정 발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휴업과 개방을 반복하게 하면서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최근의 수도권의 수영장은 지속적인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1차 유행때는 완전 유행 도시였어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금방 끝나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지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김서영, 56세).

유행 초기에는 대구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거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수도권에 수영장을 오픈한 게 오히려 독이 된 느낌이에요. 지방은 운영을 하지만 여기는 계속 못하니까(박준수, 43세).

강사, 직원 등 모든 분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불안하니까, 서로의 불신감도 생기고 갈등요소만 생기기도 했어요(이종명 54세).

권연택(2021)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초기, 즉 COVID-19 바이러스 유행 후, 대략 1년 사이에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약 46일정도의 휴업 및 폐쇄일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지역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이처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의 상이한 거리두기 단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언제 다시 COVID-19의 대유행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부 관계자들(직원, 강사 등)도 본인과 직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있었고, 때때로 직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직원들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쌓여갔으며(Tsaur & Tang, 2012), 운영진과의 갈등도 잦을 수 밖에 없었다.

##### 2) 회원 급감 및 많은 직원 수에 대한 부담

어린이전용수영장의 대부분 강습이 성인반 강습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내부적 환경을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과 비교해보면, 수영장은 레인의 수만큼 반을 개설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강사의 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올 케어 시스템(All care System)을 적용한다. 이는 학생의 집 앞에서 픽업, 탈의, 강습, 샤워, 의류 및 헤어 케어, 그리고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SEO & SEO, 2020). 서비스 품질이 학생과 학부모의 강습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조이나, 김상유, 박장근, 2021). 이러한 업계의 분위기 상황에서, 수영 강사 이외에

도 케어 담당 직원들의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노동법 등의 영향으로 정직원을 상당수 채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시한 실내체육시설 COVID-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매출이 80%이상 감소시설이 10.5%, 40~60% 감소 시설이 35%에 달한다고 한다(참여연대 민생본부, 2021, 6, 17). 이러한 상황 속에 COVID-19 사태를 맞이한 대부분의 수영장은 직원들의 인건비 감축이 유일한 대비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강사를 내보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죠. 제가 강사나 직원들과 대표님하고 중간의 위치에 있다 보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8명 중에 3명을 내보냈죠. 정말 그때는 저 입장이 사면초가였던 것 같아요(박민아, 44세).

아무래도 다른 사설 체육시설업종보다 직원 수가 많고, 강사들은 월급도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든 버틸 때 까지 해보자는 식이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 지날갈 때 마다 파트 타임 강사 한명씩 내보내고는 결국 정직원 3명에서 모든 일을 봤어요. 운행도 나가고, 케어도 했어야 됐죠(최진아, 38세).

보통 지도자보다 수영 강사가 기본급이 높아요. 직원 12명인데 1명 빼고 다 정규직이에요. 작년 말 경우에는 2.5단계라서 문 닫고, 수입은 0원, 직원들 월급만 5천만원 정도였어요. 최근까지 손해액만 따지면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깐 다른 체육관하고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입니다(권영아, 47세)

권영아의 진술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타 실내체육시설업에 비해서 수영 강사들의 높은 기본급에 따른 부담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손해액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강사의 높은 기본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 수가 더 큰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수영장과 달리, PT전문 헬스장은 소규모 인원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강사의 수가 적은 관계로 직원 감축 및 무급 휴가에 대한 압박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보다 상황이 덜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영장과 태권도장과 비교할 때, 같은 1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강사의 수는 수영장이 2~3배 많으며, 임대료, 수도세 등을 포함하는 고정비용이 훨씬 많다. 따라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COVID-19 사태가 수영장 운영에 주는 타격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 3) 강사의 이탈과 수업에 대한 위험적 요소

2017년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 의무 시행과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2017).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수영 교육 실시 여건이 열악하였기에 지역 내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학교 시설의 대안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이인엽, 한진옥, 김태형, 2019). 이로 인해 새롭게 생긴 많은 수영장의 운영 상 입장에서는 강사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강사 수급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강사들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예요. 사실 월급이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좀 많은 편이지만, 일 자체가 힘들어서 오래 강사 생활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가지전에 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크구요. 여자 강사는 정말 더 구하기 힘들어요(박성진, 43세).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탈되거나요. 그런데 직장이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인식이 많아서 유급 70% 월급을 쥐도 이탈합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열어서 오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회원들도 선생님 바뀌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박민아, 44세).

지금 불안한 부분이 공공수영장이 폐쇄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금이 사설보다 공공이 좀 더 높고, 일도 덜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공공 수영장이 문열면 전부 이탈할까 걱정입니다(김태환, 38세).

연구참여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첫째, COVID-19 사태로 인한 직원 이탈이다. 많은 수영장에서 강사들의 생활을 위해 약 70% 수준에서 유급으로 강사의 임금을 지원해 주지만,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해서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직원 수급의 효과성 미비이다. 기존 강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강사를 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 유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사가 자주 교체되면, 초등학교 이하가 주된 회원이라는 점에서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마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수영장의 정상 운영으로 인한 강사 이탈에 대한 염려이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의 공공수영장의 장기적 폐쇄로 인해 사설 수영장으로 일터를 옮긴 강사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COVID-19 사태의 안정적인 시기가 온다면, 강사들이 공공수영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더 큰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공공수영장의 근무 환경과 임금 수준이 어린이전용수영장보다 좋다는 인식이 확고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강사 수급에 대한 위협적 요소가 난제로 나타났다.

## 2. 외부 환경적 요소:

### 고위험군 프레임과 정부지원정책의 비형평성

#### 1) 무차별적 고위험군 시설 프레임 씌우기로 인한 2차 피해

보건복지부(2020, 3, 21)는 종교시설, 유흥시설과 함께 실내체육시설도 15일 간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으며, 줌바댄스 교습소, 탁구장 등에서 확산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스포츠관련 시설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강제 폐쇄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KBS, 2020, 3, 21).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조치로 실내체육시설업이 COVID-19 바이러스의 유행을 유발하는 고 위험 군으로 분류되어 대중들의 기피시설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탁구장에서 확진이 많이 나왔다고, 모든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중략...탁구장에 비하면 우리는 공간도 엄청 넓은데에 반해, 다 같은 체육시설이라고 무조건 다 문 닫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 마녀 사냥아닌가요?(전유민, 41세).

실내체육시설업은 1종으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실내체육시설 운영금지를 한다고 해놓고, 권투, 태권도장은 적은 인원 수는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웃기죠(박성진, 43세).

술집은 적은 인원수면 괜찮고, 저희는 방역수칙 잘 따라서 운동 하는 건데 이런 대책이 형평성이 있나요? 실내체육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1%도 안되는데, 여기가 고위험시설이고,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박준수, 43세).

코로나 사태가 약 1년이 흐른, 2021년 1월, 애초 정부는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체육시설만 문을 열게 하였다. 하지만,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관 등은 문을 열 수 없었으며, 태권도장에서는

줄넘기 수업은 되지만 줄넘기 교실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김세희, 2021, 1, 8). 약 2년 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방역대책 및 제도 적용의 미숙함이 지속해서 드러났고, 국민들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꺼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주, 지도자를 포함한 운영 관계자들에게 가중되었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정부의 미숙한 정책 시행과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가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미디어의 악영향으로 정부가 체육시설을 고 위험 시설로 분류했다는 인식도 존재하였다(권연택, 2021).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높았던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언론의 집중보도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회원들의 환불 채도와 연기 신청이 계속 이어졌다. 실제로, 정부에서 고 위험 시설 프레임은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의 어린이전용수영장 매출도 3분의 1로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민경환, 2021, 1, 14). 정부와 언론의 비대칭적인 대책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의 한숨은 아직도 깊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 2)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정책의 비형평성

김현일(2020)은 정부의 '5.28 대책'(문화체육관광부, 2020)은 제한적인 금융지원이며, 소비자 중심 지원이었기에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중심에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운영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당한 부분에서(장희준, 2020, 12 28) 정책의 비형평성을 지적하였다.

처음부터 강사들의 안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의 모든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었어요. 다들 열심히 일했고, 즐거웠어요. 가족같이 지내던 친구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나가라고 하기도 힘들고, 반대로 월급을 다 지불하자니 힘들고...중략...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만 5인 이하 영세 자영업자만 해당된다고 하니가 정말 힘들죠(권동완, 53세).

우리 센터에는 저 이외에는 강사들이 전부 계약직이구요. 그리고 파트타임 강사 2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받았어요(정경아, 40세).

강사가 6명이고, 직원이 3명, 기사님 1명 이렇게 있는데요.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원이 6명이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못 받았죠.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4대 보험 들어가는 직원에 대한 월급 보조 지원책이 있어서 다행히 받을 수 있었어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강사를 6개월 동안 160만원씩 보조가 되었으니까. 이것만 봐도 정부에서는 하는 정책은 엉터리예요(김서영, 56세).

권동완 참여자는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그리고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로부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COVID-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체육시설들을 지원하려 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김현일, 2020). 이러한 움직임은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2020년 말과 2021년 초, 두 차례에 걸쳐 17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민경환, 2021, 1, 14).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대 보험 가입을 포함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한 종사



자의 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월 1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김가을, 2021, 4, 26). 모든 종사자가 아닌 종사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왕 설래가 있었다. 정규직 직원을 4인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영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지원정책 발표는 수영장마다 상이한 고용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회일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한 것이다.

#### IV.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개선방안

##### 1. 수영장 운영 시스템의 변화 모색: 수익구조 개선과 새로운 대응책 강구

###### 1) “어린이” 전용 강습이미지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

2000년 대 초반, 국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수영장이 급증하게 되는데, 체육시설 관련 법 테두리에서 시설 확대에 의한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2008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영장 설치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SEO & SEO, 2020). 대부분의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유아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습하기 위한 시설로 이어진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COVID-19 시대가 지속할 것을 감안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구상을 했었는데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지만, 여성 성인 혹은 노인 분들을 위한 수업 개설도 계획했었어요. 실제로 평일 오전과 저녁 늦은 시간에는 수영장이 비어 있으니까요.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권영아, 47세).

평일 오전에는 주부, 성인, 노인분들을 위한 아쿠아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성인 수영반도 저녁 마지막 타임에 5반 개설을 했어요. 학부모들이 자녀들은 코로나 때문에 접이나서 안보내지만, 성인분들은 오시더라구요(최진아, 38세).

최진아 참여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COVID-19 시대에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COVID-19 바이러스 유행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체육활동에는 다소 회의적이기에, 수영강습의 대상과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최소한의 수익 손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강습 대상을 어린이에 한정하지 않고, 평일 새벽, 오전 타임에 성인(여성 주부 포함),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집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수영 강습이외에도 아쿠아 다이어트, 아쿠아 트레이닝, 수중 재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다변화시켜야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회원들의 장기간 운동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김우기, 김원기, 2014; 남인수, 2009),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운영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 2) 장기적 관점의 방역지침 대안 및 대응책 강구

이금숙(2020, 6, 3)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물은 COVID-19 바이러스 감염의 ‘안전지대’라고 한다. 또한, 감염내과, 화학과 소속 전문가들은 "수영장 물은 대부분 높은 농도의 염소(Cl)로 소독이 되어 있기에 COVID-19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대부분 사멸하며 감염자가 몸을 담근 물에 들어가도 감염되진 않는다" 하고 주장한 바 있다(김수진, 2020, 5, 29). 이러한 원인은 COVID-19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감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사태가 시작된 후, 전국의 모든 수영장엔 반강제적으로 문을 닫은 바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기피 시설이 되곤 하였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공공시설은 전국 어디도 오픈한 곳이 없었고요, 시설의 경우에는 정말 버티다가 오픈을 간헐적으로 하였지만, 기존 회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중고를 겪은 셈이죠. 정부에서는 사람 많은 시설 중 하나니까, 절대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최근에 뉴스에서 물속은 안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 적이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만들고 대응을 하려고 해요(전유민, 43세).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요. 앞으로 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살아남아야죠. 우리 수영장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손 불려고 해요. 샤워나 탈의실 이용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종명, 54세).

최근 온라인(on-line) 또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스포츠 강습과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함주일, 2021). 이러한 현상은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스포츠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나 사업자들이 반응하는 단순히 일회성 혹은 단기간의 양상이나 대응이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이 연구참여자들에게도 지속해서 운위되어 왔고, 미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 혹은 대응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전용수영장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상기의 언론에서의 보도와 같

이, 수영장 내에서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은 떨어지며, 샤워실 또는 탈의실에서의 주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라도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함주일(2021)은 향후 COVID-19 시대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스포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설 어린이전용수영장의 개별적인 방역 대응책 수립은 미래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안일 수 밖에 없었다.

## 2. 법, 제도적 환경의 변화: 법안 개정 요구 및 정책적 진흥 방안 추진

### 1)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상기 진술한 바와 같이, COVID-19 사태를 통해 국내 실내체육시설업종의 다양성에 비해 법적인 부분의 취약점이 나타났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업이 존재하지만, 운영환경과 운영 방식은 매우 상이한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 뿐 아니라 운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Bloyce & Smith, 2010).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체육시설업들이 크게 등록, 신고업으로 나눠 지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 시설인데도 어느 영업장은 되고, 어느 영업장은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권동완, 53세).

태권도장은 되고, 줄넘기 학원은 문 열면 안되거든요.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체육시설업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박준수, 43세).

지난 1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 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실내 체육시설 중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의 경우에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재원, 2021, 1, 7). 하지만, 많은 실내체육 시설 운영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체육시설업이 45개 종목으로 한 울타리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탁상행정(卓上行政)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체육시설관련 법안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이 1개로 통합된 현행 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특징에 맞게 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을 제시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신용진, 2021, 1, 6).

김현일(2020)은 현재 특정 운동 종목 유형으로 분류한 체육시설법 제10조를 종목 유형과 더불어 시설 공간 개념을 더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등록’, ‘신고’, ‘자유’ 단계의 분류를 공간과 활동 형태에 맞추어 더욱 세분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전용수영장은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과 같이 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적 개념은 타 시설과 달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목의 유형과 공간적 개념, 그리고 서비스 종류의 개념에 따른 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2) 실내체육시설의 자율적·자발적 운영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연구참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의 반강제적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세금을 이용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식의 단기적 정책은 그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미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원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더내고 덜 받는 개념인 것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답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권동완, 53세).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워낙 무서운 코로나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김서영, 56세).

김성일(2020)은 COVID-19 팬데믹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속해서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 재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견해는 연구참여자의 인식과도 상당수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단순히,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한과 지원금 부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COVID-19 확산 대비 세부지침(출입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및 대여용품 제공 금지, 실외와 연결된 환풍시설 상시 가동 등)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설정한 후,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연구참여자들이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타산지석(他山之石): 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와의 거리두기’ 편을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보내었다. 또한,

2020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TV영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 "담배는 노답(No答), 지금 노답(No답배)"의 성과를 거두었다(보건복지부, 2021, 3, 30). 이러한 성과를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담배관련 광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취지를 담은 공적 광고이다. 이를 체육, 스포츠와 대비시켜 볼 때, 전혀 어색함이 없는 광고가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필히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라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김진실, 강수정, 김대진, 최인영, 최병선, 2018). 다시 말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금연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어린이전용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보건소에서 금연하라고 지원해주잖아요.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하고 협업도 해야하는 것이죠. 우리도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 중 하나 아닌가요? (정경아, 40세)

운동을 장려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청소년, 노인 등이 운동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권동완, 53세)

연구참여자들은 미래 COVID-19 사태 속에서 실내체육시설업의 존폐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금연 클리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클

럽에 참여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전원재, 임수원, 2017). 이러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정책적 보완은 어린이전용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업의 안정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서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대비할 수 있는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의 지적전통 중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채택하였다.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 최종적으로 1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iles & Huberman(2009)이 제시한 체계적 분석절차 3단계를 차용해 분석하였다. 자료의 진실성 검증은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ing)와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난제는 내부 환경적 요소와 외부 환경적 요소로 나타났다. 내부 환경적 요소는 시설 패쇄 공포로 인한 관계자들의 불안감 및 갈등 고조, 회원 급감 및 많은 직원 수에 대한 부담, 강사의 이탈과 수급에 대한 위험적 요소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외부 환경적 요소는 무차별적 고위험군 시설 프레임 씌우기로 인한 2차 피해와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정책의 비형평성의 테마로 나타났다.

둘째,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개선방안은 수영장 운

영 시스템의 변화 모색과 법, 제도적 환경의 변화의 차원이 나타났다. 수영장 운영 시스템의 변화 모색은 “어린이” 전용 강습이미지 탈피 및 수익구조 다변화와 장기적 관점의 방역지침 대안 및 대응책 강구의 테마로 나타났다. 법, 제도적 환경의 변화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실내체육시설의 자율적·자발적 운영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 그리고 타산지석(他山之石):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의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2017년 어린이전용수영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일반 학원과 같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되어 수익성 증가와 함께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SEO & SEO, 2020).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장 수가 많아졌다. 유·아동,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된 고객이 되는 어린이전용수영장의 확산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요소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있다(Pan, 2010).

앞으로 맞이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스포츠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체활동의 기본 조건은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활성화는 어린이들의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에 필수적이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COVID-19 바이러스와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전용수영장의 내부적 환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외부적 환경에서는 지자체,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운영 관계자에 한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업 관계자

를 토대로 COVID-19 시대 속 운영 난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모든 세계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법적,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계, 스포츠계도 당연지사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실내체육시설과 관련된 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연택(2021). 코로나-19 시대 등록·신고 실내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고찰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9(1), 195-206.
- 김가을(2021, 4, 26). 국민체육진흥공단,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참여업체 접수. **조선일보**.
- 김도균(2020). 코로나19가 스포츠산업에 미친 영향 및 전망.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 151, 18-31.
- 김성일(2020).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인식 전환 연구. **인문사회** 21, 11(6), 1411-1424.
- 김수진(2020, 5, 29). 날씨 너무 더워 수영장 꼭 가겠다면... 물은 괜찮지만 밀접 접촉 '위험'. **헬스조선 뉴스**.
- 김세기(2020). 코로나 19로 인한 초등학교 체육교과 원격수업 실태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 145-158.
- 김세희(2021, 1, 8).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돌봄 교습 허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KBS NEWS**.
- 김용덕(2021, 1, 9). 황대호 의원, 실내체육시설 지원 모색 정당회 개최. **매일타임즈**.

- 김우기, 김원기(2014). 수영참여 재미요인이 운동지속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319-328.
- 김주호(2017). 어린이수영장 선택속성이 학부모만족, 서비스애호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5(1), 235-245.
- 김진실, 강수정, 김대진, 최인영, 최병선 (2018).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의 성별 금연 성공요인. **대한보건연구**, 44(1), 17-30.
- 김차경(2020, 12, 18). 우리 일상 모든 것 바꾼 ‘코로나19’...1년의 기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화룡, 성문정(2019). 어린이수영장의 서비스품질과 만족 및 고객충성도 관계. **한국유화학회지**, 36(4), 1224-1234.
- 김헌일(2020). 코로나 19 사태와 체육시설 정책·제도 현안 분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 조’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4, 113-127.
- 남상우(2020). 포스트 코로나 사회, 스포츠, 스포츠사회학.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3(4), 1-18.
- 남인수(2009). 성인 수영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의사결정균형이 운동몰입,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4), 113-125.
- 백지혜, 양서은, 현재민(2020). COVID-19에 따른 스포츠 활동 실태와 스포츠 활동 개선방안.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2), 343-351.
- 문화체육관광부(2019).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0, 5, 28).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추가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12, 30). 2020년 생활체육 참여율 60.1%,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포인트 감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민경환(2021, 1, 14). [헬스장 출입금지 그후] 트레이너 "일자리 잃고 일용직 알바 전전". **세이프타임즈**.
- 보건복지부(2020, 3, 21).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0, 3, 30). 담배는 노담,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 신용진(2021, 1, 6). [기고]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해결 위해 더 세분화 필요. **매일신문**.
- 신진호, 권연택(2013). 어린이 전용 수영장 서비스 품질이 학부모 만족도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5), 2855-2869.
-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2020). 코로나-19 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 131-144.
- 이금숙(2020. 6, 23). 실내수영장 vs 워터파크... 코로나19 안전지대는?.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3190.html](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3190.html)
- 이동성, 김영천(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 이인엽, 한진욱, 김태형(2019). 어린이전용수영장의 서비스스케이프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8(2), 519-531.
- 장희준(2020, 12, 28). “코로나19, 우리도 절박합니다”...어린이전용수영장 업계 ‘지원책’ 호소. **경기일보**.
- 전원재, 임수원(2017). 한국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1), 149-173.
- 정성조(2021, 6, 17). "실내체육시설 99% 매출 감소...60%는 임대료 연체 중". **연합뉴스**.
- 조이나, 김상유, 박장근(2021). 어린이 전용 수영장 서비스품질과 재미요인이 수영강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12, 17-25.

- 참여연대 민생본부(2021, 6, 17).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 채준(2019, 9, 16). 조정열 신바트 대표, 어린이전용수영장 더 안전하게. **스타뉴스**.
- 함주일(2021). 위드 코로나 시대에 스포츠 안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시큐리티 연구**, 67, 99-122.
- 홍기혁(2016).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 대한 인식과 기대: 소비자 및 운영자의 관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홍기혁, 박재우, 김주용(2021). 어린이전용수영장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과 운영 실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9(2), 67-86.
- 행정안전부(2017).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안전문화교육과.
- KBS(2020, 3, 21). 정 총리, “종교·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강력 권고”.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7041&ref=A>
- Miles, M. B., & Huberman, A. M. (2009). 질적자료분석론.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2nd eds). 박태영 외 역. 서울: 학지사.
- Pan, C. Y. (2010). Effects of water exercise swimming program on aquatic skills and social behaviors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utism*, 14(1), 9-28.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Rubin, H. J., & Rubin, I. S. (2011). *Qualitative interviewing: The art of hearing data*. CA: Sage.
- SEO, M. S., & SEO, W. J. (2020). Status analysis of children's swimming pool in Korea.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4(3), 23-28.
- Tsaur, S. H., & Tang, Y. Y.(2012). Job stress and well-being of female employees in hospitality: The role of regulatory leisure cop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1(4), 1038-1044.
- WHO(2020, 7, 21). *Timeline of WHO's response & Situation report*.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 Yin, R. K. (2017).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